



전북도교육청은 24일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학생체험단 유치에 힘을 모으자며 고창군과 손을 맞잡았다.

# 학생체험단 유치 '맞손'

도교육청, 고창군과 교육협력 협약... 지역 소멸 위기 타개 공동대응 취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4일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학생체험단 유치에 힘을 모으자며 고창군(군수 심덕섭)과 손을 맞잡았다. 이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날 고창군청에서 글로벌 인재양성, 돌봄시설 확충 등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고창군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소멸 위기와 학생 수 급감이라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 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취

지로 이뤄졌다. 심 군수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주도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거석 교육감, 유승호 교육장과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고창군이 인재양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감사하다"면서 "고창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 교육감과 심 군수는

학생체험단 고창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심 군수는 "고창에는 고인돌, 갯벌, 농악, 관소리, 생물권보전지역, 동학 등 많은 세계유산이 있다"면서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학생체험단 유치와 수확여행지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고창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은성 기자·고창=김영식 기자

## 6월 5일까지 탄소중립·기후행동 실천 추진

도교육청 소속기관·학교서... 27일까지 기후변화주간 맞아 도교육청도 동참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나섰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6월 5일까지를 환경교육주간으로 정하고, 모든 소속기관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탄소중립과 기후행동 실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21~27일은 저탄소 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환경부에서 지정한 '제15회 기후변화주간'으로 전북교육청도 이 기간 동안 탄소중립 생활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다. 늘기로운 학교 탄소중립 생활로

캠페인 주제를 정하고, 매일 실천해야 할 기후행동을 안내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실천 사항은 △지구의 날인 22일에는 전국 소등 행사 참여하기 △23일 기후행동의 날엔 스스로 실천하는 기후행동(식물 심기 △24일 녹색소비의 날은 먹음 마름 담고 최소 한 끼 채소 한 끼 먹기·1회용품 대신 다화용품 사용하기·비닐 봉지 대신 에코백 사용하기 △25일 에너지 소비 줄이기의 날로 쓰지 않는 플러그 뽑기 빈 교실의 조명 소등, 물 절약하기 △28일은 자원순환의 날로 종이 출력률 줄이기

재활용 위한 분리배출, 손수건 사용하기 △27일은 무탄소 이동의 날로 가까운 거리는 걷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줄기 및 플로깅 등이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환경교육 의무화 시행에 따라 4월 22일 지구의 날에서 6월 5일 환경의 날까지 짙은 환경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별 학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면서 "개개인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 확산되고, 나아가 개인의 실천들이 공동의 실천이라는 큰 움직임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싱가폴 현지 대형호텔 채용 면접·특강 진행

내달 3일·22일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직접 방문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는 오는 5월 3일과 22일 싱가포르 현지 대형호텔 관계자들이 학과를 직접 방문해 채용 면접과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5월 3일에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 정재은 관리이사 전주대 호텔경영학과를 직접 찾아 학생들을 면접하고, 당일 15명을 현장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샹그릴라 호텔 채용 면접에서 합격한 학생들은 호텔 관계자들은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 관계자들은 이날 호텔경영학과의 학생 전공 수업을 참관하고 산업 경력자로서 팀 티칭도 할 계획이다. 심영국 교수는 "리츠칼튼 밀레니아 싱가포르나 샹그릴라 싱가포르와 같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는 오는 5월 3일과 22일 싱가포르 현지 대형호텔 관계자들이 학과를 직접 방문해 채용 면접과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은 여러 해외 대형호텔에서는 이미 우리 학생들의 근무 평가가 아주 우수한 것으로 검증됐다"며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이들 호텔과의 관계를 더 발전적으로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호텔경영학과는 지난 2월 싱가포르 현지에서 현장 면접을 진행해 학생 6명이 플루튼 보코, 세라톤 타워 호텔 등 현지 5성급 대형호텔에 취업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 "학생들 위한 간식 나눔 등에 써달라"

양오봉 전북대 총장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학생들을 위한 간식 나눔 등에 써달라며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갖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반값 커피와 원원의 아침밥, 간식 나눔 행사 등의 밀착형 학생 복지를 위한 총장의 의지를 담았다. 한편 이번 기부금은 중간시험 학생 격려를 위한 간식 나눔 행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양오봉 총장은 "우리 학생들이 보

다 좋은 환경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총장으로서 솔선수범했다"며 "학비나 생활비 근심을 줄여주는 등 우리 학생들의

기러운 곳을 열어주는 현실적인 학생 복지 공약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청렴도 우수기관 도약 발돋움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마련... 반부패·청렴정착기반 구축 등 5개 전략·17개 대책 담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청렴도 우수기관 도약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전북교육청은 교육청 유형에서 4등급의 미흡한 성적을 거두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목표로 강력한 청렴 시책 도입을 주문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반부패·청렴정착기반 구축 △부패유발요인 발굴·제거 △기관장(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제고 △구성원의 청렴역량 강화 △관심과 참여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의 5개 전략과 17개 추진대책을 담았다. 특히, 교육청 전체의 반부패 청렴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육감 주재 반부패 협의체 운영, 부서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1부서 1청렴과제 수립·이행, 청렴활동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모두가 함께하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이와 함께 부패·공익 신고에 우호적인 조직문화 조성, 소문을 통한 갑질 감수성 제고, 다양한 방법의 맞춤형 청렴 교육 등 청렴도 저조 원인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이호열 감사관은 "지난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각 부서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청렴과제 발굴과 실행,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의 반부패 청렴 의지와 노력 등을 통해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미래학교 현장지원단 운영

교감·수석교사 등 101명 구성 학교 현장 컨설팅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년 전북미래학교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감·수석교사·교사·교육전문직원 등 101명으로 구성, 학교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다. 전북미래학교는 △기초?기본학력 기반의 미래역량 함양 △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질적 개선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환경 구축 등을 3대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기후환경교육 △문제해결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학교-마을 연계교육 △통합교육(초·중·고) △IB(국제)학교 △학교 자율(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 7대 분야가 대표적이다. 현장지원단 컨설팅 지원은 외부의 시선을 통해 학교 구성원이 들여다보지 못한 문제를 발견해 해결하도록 돕는다. /정은성 기자

컨설팅 방향은 △학교 및 교육지원청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 경감 △학교급 맞춤형 컨설팅 적용 △현장지원단 구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해 교육의 변화를 견인하는 것이다. 컨설팅은 4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학교의 희망 날짜를 수렴해 운영할 계획이다. 컨설팅을 받는 학교에서는 교감, 수석교사, 담당교사, 부장교사 등 4명 내외가 최소 인원으로 참여하고, 6학년 이하 학교는 전 교원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날 전주기전대 행복가속에서 전북미래학교 현장지원단 1차 협의회를 가졌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전북미래학교 현장지원단 운영으로 학교 현장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신장시켜 나가겠다"면서 "교원 역량강화 연수, 워크숍,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단위학교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교내 벤처기업인(취창업)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2종을 인정 승인받았다. 이번이면 연이은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에키네시아 추출물'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양춘사(한약재명 사인) 추출물' 등 2종의 기능성 원료 인정서를 획득했다. 에키네시아 추출물은 한의과대학 배기상 교수 도움으로 비임상 실험을 진행했고, (주)뉴온과 공동 개발해 오는 7월 신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양춘사 추출물은 이금산(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이정환(원광대학교교향방병원장) 교수가 2017년부터 5년에 걸친 공동 연구를 통해 SCDP 국제학술지에 논문 4편을 게재한 데 이어 두 건의 인체적용시험 결과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해 최종 기능성 원료 인정서를 취득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호원대 창업보육센터, 도내 운영평가 '최우수'

창업보육 활성화 사업비도 지원받는다. 정의봉 창업보육센터장은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성공적인 창업 및 안정적 성장체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단계별 사업화 지원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며 "자립적인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목표로 호원대의 인적 자원과 산학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및 성공률 제고를 통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